



2016년 8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국이민사박물관 특별전 '또 다른 이민, 해외 입양'이 열리고 있다. 1948년부터 2004년까지 약 50년간의 한국 이민사 중 해외 입양은 전체 이민자의 약 1/3을 차지하는 중요한 이민 형태였다. 특히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 80만 명이 넘는 한국 어린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어 '아동 판매(Babies for Sale)'라는 비인간적인 관행에 희생되었다. 그러나 2007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1,388조)가 개정되어 1,264조로 바뀌면서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이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국경을 넘어가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이민'이라는 단어가 '이탈'과 '출발'
 (이탈, 출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이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국경을 넘어가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 ()
 /